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1(土)	22(日)
	
구름 조금 -3/8℃	흐리고 비 3/8℃

#### News

- 힐러리, 北 후계 발언 ②
- 71세 여고 졸업생 ③
- 최경주 1R 3타 차 3위 ⑭

#### Books

- 우리 한시의 풍경과 미학 ⑧

#### Entertainment

- 아줌마들 '시트콤' 접수 ⑦



- '멜로 영화'가 몰려온다 ⑩

#### Wellbeing

- "유기농 과자 드세요" 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이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2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故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미사가 끝난 뒤 운구행렬이 성당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金 추기경 사랑을 뿌리고 떠나다

### 어제 장례미사...가톨릭 성직자묘역 안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김수환 추기경이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영원히 떠났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김 추기경의 선종 닷새째인 20일 오전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주한 외교 사절, 사제와 신자 등 성당 안팎에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 미사를 열어 김 추기경과 마지막 작별 의식을 치렀다.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이 교황의 이름으로 집전한 장례 미사는 오전 10시 참석자들이 입당 송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를 부르면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시작한 다음 성경의 지혜서와 요한의 서신, 마태오의 복음 등을 읽는 '말씀 전례', 정 추기경의 강론으로 이어지며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정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김 추기경은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빛과 희망이 되었고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모든 한국인의 '사랑과 평화의 사도'였다"라며 "(그가) 사랑과 나눔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유산으로 남겨 주셨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신앙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갖고 산다."라고 고인을 애도했다.

말씀 전례와 성찬 예식이 끝나고 열린 '작별 예식'에서 정 추기경은 "추기경단의 일원으로 서 여러 해 동안 교황에게 충심으로 협력해오신 김수환 추기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한다."라는 내용의 교황 추도사를 대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대표인 한승수 총리가 대독한 고별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큰 기둥이었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준 큰 어른인 김 추기경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 한다."라고 고인을 애도했다.

장례 미사 후 김 추기경의 관은 서울대교구에 속한 젊은 사제 8명에 의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가톨릭성직자 묘역으로 운구돼 노기남 대주교의 묘소 옆에 마련된 자리에서 하관식을 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김 추기경의 장례이후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김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추모 미사와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21일 낮 12시 주교좌 임동성당에서 최창무 대주교의 주례로 사제단대표와 평신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미사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환율 1500원대 급등·코스피 1100선 붕괴

### 휘발유값도 1500원대

20일 원·달러 환율이 석달만에 1천500원을 돌파하고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전체가 출렁거리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5.00원 급등한 1천50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천500원대로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25일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1.15포인트(3.72%) 내린 1천65.95에 마감,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유지해오던 박스권(1천80~1천230)을 벗어났다. 개인이 3천43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605억원, 192억원을 순매도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파는 리터(L)당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500원대로 상승했다. 휘발유 값이 리터당 1천500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 ‘평화의 콩’ 90t 평양으로 북한 어린이 식탁 오른다

### 광주·전남 주민 성금 모아 '발해 통일농장'서 가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지만,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민간 차원의 정성과 손길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일보사와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러시아 연해주 '발해 통일농장'에서 수확한 '평화의 콩'이 평양으로 보내져 북녘 어린이들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20일 '발해 통일농장'에 따르면 농장 농지 200ha에 지난해 5월26일 종자 18t을 파종해 10월말 처음 수확한 '평화의 콩' 90t을 지난 17일(현지시간) 열차 편으로 우스리스크를 출발해 평양 만경대 구역 '발해콩 빵공장'으로 보내졌다.

### 광주일보사 등 추진

이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조성된 러시아 연해주 다니엘로프카 통일농장에서 수확한 유기농 대두로, 농장에서 세척·포장을 한 뒤 우스리스크에서 화물열차에 실려 하산~나진~선봉을 거쳐 평양 빵공장으로 전해진 것이다.

이 콩은 평양 발해콩 빵공장에서 생산되는 빵의 원료로 사용되며, 빵은 영양 부족과 발육 부진으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 10만명에게 매일 제공된다.

정영재 아리랑국제평화재단 대표는 "5년간 묵힌 땅에서 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다 보니 생산량이 계획에 못미쳤다"며 "하지만 이 콩은 평양 발해콩빵의 원료가 돼 북한 어린이 10만명의 식탁에 매일 올려 건강함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해주 통일농장 운영을 위한 지역민들의 성금 모금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 빵 만들어 10만명에 제공

광주 광산구와 전남도, 전남대 등 기관·단체에 이어 시·도민, 학생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담양 살구나무어린이집, 효동초교, 서림초교 등 고사리손 어린이들이 용돈을 털어 성금을 전달해 통일농장 사업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또 전남여고 42회 동창회에서 200만원을 보내와 뜻을 같이 했다. 지금까지 모아진 성금은 총 3천800여만원이다.

전남여고 42회 동창들의 모금활동을 주도한 조성자(53·전 동창회장) 씨는 "동기들이 주축이 돼 인터넷 카페(다음 카페 '사이회42')를 만들어 심사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세계의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며 "통일농장은 북한 어린이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뜻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는 광주일보 (062)220-0616, 아리랑국제평화재단 (062)368-369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연해주 통일농장에서 수확된 '평화의 콩'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우스리스크에서 화물열차에 실려 평양으로 전해졌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공항공정비장 무료이용  
국내 최대의 안전도를 주는 **광주MBC 문화항공** 상륙합니다 www.kmbc.or.kr  
"가족의 때까지 상품과 치안이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광주MBC 문화항공 직항 노선: 광주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광주MBC 문화항공 직항 노선: 광주 - 상해(방콕) 직항

중국東方航空 光州MBC 문화항공 光州·전남 북 유망여행사 ☎ 문의 062-226-6070